



# 기 술 정 보



월간 기술정보지 통권 제52호 (2015년 12호)

경상남도 건설지원과 발행



제11회 경상남도 건축대상제 대상작 「내공사 신사옥」

## 목 차

### ■ 건설관련 소식 ..... 1

- 두동지구, 첨단물류단지 투자유치 확정
- 서부청사 개청!! 경남의 새 시대를 열다
- 경상도, 재난대응에 민관이 힘을 모은다
- 경상도, 겨울철 폭설대응 교통소통대책 훈련실시
- 창원~부산간 민자도로 전구간 전면 개통
- 함안 용성지구 미니복합타운 첫 단추를 꿰다
- 경상도, 건축대상에 LH공사 신사옥 선정
- 경상도, 2015년 하반기 하수관로 점검완료
- 경상도, 2015년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추진 원활
- 김해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개관 및 무역 박람회 개최
- 밀양내이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기공식 개최

- 거가대교관광지 조성사업 착공식 개최
- 양산시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 설명회 개최

### ■ 지식정보 ..... 13

- 2.8억건의 개방 건축물정보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다.
- 건축물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쉬워진다
- 여기가 "해안·내륙권 개발사업 투자최적지"입니다.
- 국가기술자격의 New 패러다임 '16년 과정 평가형자격 교육·훈련과정 확정
- 내년 봄 가뭄 대비 1월부터 '가뭄 예·경보'도입
-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시 지역업체 참여 폭 넓어진다.
- 국토부, 지자체 임의 건축규제 대폭 개선

### ■ 최신법령 및 법령해석 ..... 22

### ■ 신기술 정보 ..... 29

### ■ 건설기술심의 및 계약심사 현황 ..... 30

### ■ 기술인 나눔 정보 ..... 32

### 두동지구, 첨단물류단지 투자유치 확정

- ▶ 23일, 도, 구역청, 사업자, 10개 물류기업과 협약 체결
- ▶ 경남 지역 최초로 수출입 관련 집적화단지 조성

경남도는 23일 도정회의실에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두동지구』 첨단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홍준표 도지사와 허성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투자를 결정한 한국관세물류협회 회원사인 (주)천경 등 10개 업체, 특수목적법인 두동도시개발(주)를 포함한 다수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두동지구는 2018년 준공목표로 총사업비 3,933억 원을 투입하여 168만㎡(51만평)에 물류단지와 주거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정주민구 2만5천명, 고용 창출 5천명, 3조 5천억 원 가량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실시계획 승인에 이어 보상 및 환지절차에 들어가는 등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에 체결한 투자협약은 그 동안 부산지역으로 편중되었던 한국관세물류협회 회원사인 물류기업들의 투자유치를 경남지역으로 되돌리는 계기가 되었다.

부산항 신항의 중심 배후지에 위치한 두동지구에 수출입관련 첨단물류 집적화단지가 조성됨으로써 경남지역의 대표적인 물류산업 전진기지가 될 전망이다.

해당 물류기업들의 투자규모는 산업시설용지 17만㎡(5만평)와 건축, 시설투자비 등 전체 3천억 원에 달하며 투자약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투자하게 된다.

이는 지난 7월에 홍준표 도지사가 ‘도정 2기 1주년’을 맞아 첫 방문지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두동지구 개발현장을 직접 챙겨 실현한 현장행정의 성과물이다.

입주기업인 중앙기업(주) 윤도원 대표이사는 “앞으로 물류기업이 지역경제 발전의 선두에서 서서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고용창출에 더욱 노력하고 지역주민과도 소통·화합하여 지역주민이 사랑하는 향토기업이 될 것임을 각오하는 자리가 되었다고 자평하며 경제자유구역 발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홍준표 도지사는 협약식에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두동지구가 경남지역의 물류산업 발전을 선도하게 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원활한 개발을 통해 물류기업들의 입주에 필요한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말했다.



▶ 자료 : 도 경제정책과 경제자유구역담당 (055)211-3454

## 서부청사 개청!! 경남의 새 시대를 열다

▶ 경남도청 서부청사 개청식 12월 17일 개최

경남도는 90년 만의 역사적인 도청 귀환과 서부청사 개청을 대내외에 선포하기 위해 경남도청 서부청사 개청식을 오는 12월 17일 14시(식전행사 13시20분)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청식은 2,800여 명의 도민과 홍준표 경상남도지사를 비롯해 김윤근 도의회 의장, 시장·군수, 도단위 기관단체장, 광역 및 기초의원 등 주요 내빈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특히 “서부대개발 비전 발표(서부부지사)”를 통해 서부청사 개청의 의미와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제의 의미를 담은 내실 있는 행사로 치러질 전망이다.

이번 행사의 주요 프로그램은 90년 만의 국기 및 도기 게양식, 서부청사 지난 1년간의 기록영상 상영, 서부대개발 비전발표, 식사 및 축사, 감사의 글 낭독, 표석 제막식, 기념식수, 축하 떡 절단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개청식은 “서부대개발 비전발표”를 통해 서부대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끌 지속성장의 비전마련 등 단순한 개청의 의미를 넘어 경남미래 50년 경상남도의 새로운 역사창조를 핵심 아젠다로 설정하였다.

또한 올 12월 개청을 위해 본청 1본부·2국(서부권개발본부, 농정국, 환경산림국), 2개 직속기관(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328명과 진주시 보건소 130여명 등 총 460여명은 오는 11월 28일부터 12월 13일까지 서부청사로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12월 4일 서부권개발본부, 12월 5~6일 진주시 보건소, 12월 7일 보건환경연구원(12.12일까지), 환경산림국 등 개청식 전까지 모든 실국과 이전기관들이 이전을 완료할 것을 전망하고 있다.

최구식 경남도 서부부지사는 “서부청사의 개청은 홍준표 도정에서 첫 번째로 완성되는 공약이며 경남미래 50년의 가장 큰 성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이번 경상남도청 서부청사 개청식과 실국 및 직속기관의 이전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서부청사가 서부대개발의 구심점으로서 경남미래50년 핵심사업인 남부내륙철도의 조기 착공, 항공우주산업 추진, 혁신도시의 완성, 항노화산업 추진 등 서부대개발의 방아쇠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서부청사로 이전할 도청 직원들은 이번 개청식을 계기로 서부권 발전과 행복한 경남미래 50년의 기반을 완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 자료 : 도 서부청사추진단 서부청사담당  
(055)211-6013

## 경남도, 재난대응에 민관이 힘을 모은다

- ▶ 25일, 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20명, 위촉장 수여
- ▶ 재난안전관련 유관 기관·단체 관계자들 민관협력활성화 방안 논의

경남도는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재난안전관련 유관기관·단체 전문가 등 20명을 경상남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는 지난해 세월호 사건 이후 정부차원에서 재난대응에 민관협력을 강조하고 있고 메르스 사태 등 일련의 사고를 통해 민관협력활동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지난 9월 『경상남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을 거쳐 위원회 구성을 통해 재난대응에 민관협력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위원회는 행정부지사를 포함한 위원 20여명으로 재난예방 홍보, 인명구조·의료지원, 복구·이재민 지원, 재난자문 4개 분과로 구성·운영된다.

평상시에는 안전문화 캠페인 참여, 재난 위험요소 모니터링·제보, 민관협력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참여 등의 활동을 하며 재난 발생시에는 신속한 상황전파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가용인력과 장비의 현장투입을 통해 군·경·소방의 인명구조 및 수색현장 활동 지원, 피해지역의 복구활동 지원 등의 기능을 하게 된다.

이외에도 재난대응에 관한 민관협력 우수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련 기관·단체의 재난대응역량 강화를 통해 도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일익을 담당한다.

또한, 위원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해 위원 모임의 정례적인 개최, 적극적인 협력정책개발·시행과 중앙이나 지자체에서 주최하는 각종 교육훈련에 빠짐없이 위원들을 참석시킬 계획이다.

서일준 경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금번 경상남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재난분야 민관협력의 첫 단추를 끼운 것”이라면서 민관이 힘을 모아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대응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자료 : 도 재난대응과 재난총괄담당  
(055)211-2813

## 경남도, 겨울철 폭설대응 교통소통대책 훈련 실시

▶ 경찰청, 소방서 등 유관기관 합동훈련으로  
강설 대비 교통소통대책 점검

경남도는 27일 김해 장유 불모산 휴게소 인근 지방도1020호 선상에서 도를 비롯한 창원시, 김해시, 경남지방경찰청, 창원중부경찰서, 김해서부경찰서, 김해서부소방서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겨울철 폭설대응 교통소통 대책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겨울철 강설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한발 앞선 제설대책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제설차량, 견인차, 구급차 등 20여 대의 차량을 동원, 설정된 폭설상황에 따라 상황전파, 인명구조, 제설작업, 사고차량의 구호, 교통통제 및 우회도로 유도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서일준 경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이번 훈련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과 작년 강설 시 교통대란이 발생된 원인을 철저히 분석·보완하여 폭설대응을 위한 관련기관별 협조체계를 강화, 최선을 다해 도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도민들도 내 집 앞 눈 치우기, 대중교통 이용, 차량 월동장비 준비 등 겨울철 강설대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경남도에서는 교통두절 및 고립예상지역 237개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특별관리 하고 있으며, 신속한 제설대응체계 가동을 위한 제설장비 1,246대, 염화칼슘 3,400톤을 사전 확보하여 유사시 민·관·군 상호 응원체계 구축 등 폭설대비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 자료 : 도 재난대응과 자연재난2팀당  
(055)211-2833

## 창원~부산간 민자도로 전구간 전면 개통 12월 5일(09:00)

- ▶ 통행요금은 12월 12일부터, 창원·녹산영업소 각각 1,100원

경남도는 지난 2013년 10월 1·2단계 개통에 이어 3단계구간(울하IC~녹산영업소~미음교차로~세산교차로, L=5.48km, 왕복4차로)에 대하여 12월 5일 9시를 기하여 전면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창원~부산간 도로는 이미 개통한 창원~김해간 17km를 포함하여 부산까지 전구간이 개통됨으로써 만성적인 교통체증으로 불편을 겪어오던 기존 창원터널의 통행량 중 하루 2만3천여대를 분담하여 교통체증 해소에 기여한다.

또한, 안민터널을 이용하는 차량 중 1만5천여 대가 창원~부산간 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창원과 부산을 오가는 교통량이 분산되어 교통 혼잡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창원~부산간 도로는 경상남도의 다른 민자도로와 달리 MRG(최소운영수입보장)를 지급하지 않는 전국 최초의 민간 투자사업이며, 완암IC~세산교차로 전 구간 개통으로 창원에서 부산 서부권인 하단, 명지까지 최소 20분 이상, 통영과 고성에서는 최소 40분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번 개통은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통 예정일보다 7일 앞당겨 개통한 것으로, 통행시 안전운전과 다른 차량에 대하여 양보운전을 당부했다.

창원~부산간 도로 3단계구간(장유~강서)에 대하여 12월 5일 09시~12월 11일 24시까지는 무료통행을 실시하고 그 이후는 유료로 전환되며, 통행료는 12월 12일 0시부터 징수된다.

통행료는 창원영업소와 녹산영업소에서 각각 도로이용자로부터 받게 되고, 영업소별로 소형 1,100원, 중형 1,700원, 대형 2,300원이다. 또한, 장애인 차량과 경차 등에 대한 통행료 감면은 유료도로법에 따라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창원~부산간 민자도로 노선도 (22.48km)



■ 자료 : 도 도로과 도로정비담당  
(055)211-2983

## 함안 용성지구 미니복합타운 첫 단추를 꿰다

▶ 26일, 함안군 칠서면 용성지구 미니복합타운 개발계획 최종승인, 고시

경남도는 지난 달 26일 경남미래50년 사업인 함안군 칠서면 “용성지구 미니복합타운” 개발계획을 최종 승인하고 이를 고시했다.

함안칠서용성지구 미니복합타운은 2012년 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책과)의 시범사업 대상지 및 2014년 경남미래50년 사업으로 선정되어 적극 추진해 왔으며 금번 개발계획을 승인함으로써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용성지구 미니복합타운은 함안군과 (주)부영주택이 2014년 업무협약을 통해 공동사업자로서 340여억 원을 투입하여 칠서면 용성리 일대에 약150,000㎡의 대지에 서민형 임대아파트 2,000세대를 건설하는 계획으로 시작하였다.

그동안 미니복합타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청과 학급증설에 관한 이견으로 난항을 겪어왔다.

또한 함안군 관내에 출퇴근하는 3만여 명의 근로자들은 정주여건이 마땅치 않아 직장주거지 불일치에 따른 불편을 겪어 왔고, 이러한 불편은 관내 기업에서 높은 이직률로 나타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경남도는 금번 미니복합타운 단지 내 학교 부지를 추가로 계획하면서 통학 문제와

학급증설문제 등을 동시에 해결해 사업추진의 급진전을 가져왔다.

김대형 경남도 도시계획과장은 “금번 미니복합타운 승인은 주거·문화·복지·출퇴근 문제를 해소되어 함안군 내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직장에서 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인구 유입을 통하여 함안군의 지속성장 가능성을 키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함안용성지구 미니복합타운은 이달 중에 감정평가 등을 거쳐 본격적인 토지보상을 진행하여 내년 2월경 착공을 거쳐 2019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자료 : 도 도시계획과 산업단지관리팀당  
(055)211-4252

## 경남도, '15년 하반기 하수관로 점검 완료

▶ 하수관로 공사 및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등 대상지 33개소 점검

경남도는 하수관로 부실시공 방지 및 지반침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10월 19일부터 11월 6까지 하수관로 공사현장,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구간 등 33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

주요 점검내용은 하수관로 공사 부실시공 방지 및 하수관로 준설실태와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점검을 실시하였다. 특히, 하수관로 설치 후 CCTV 및 수밀시험 실시로 부실시공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부서장 매월 1회 이상 현장 독려 지시 및 하수관로 준설 실시로 하수의 원활한 배수를 확인하였다.

또한, 자체적으로 공사효율 향상을 위한 하수관로 자재설치 시연회 개최 등 우수사례에 대하여는 전 시군에 전파하였다.

이번 점검 시 공사현장에서 자재 및 건설폐기물 등 관리상태, 하수관로 매설에 따른 비산먼지 방지대책 및 임시포장 구간 관리상태 등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도는 현지에서 시정 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정석원 경남도 수질관리과장은 “부실시공 및 지반침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매반기별로 하수도 공사 추진 상황을 점검하여 하수관로로 인한 지반침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문제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자료 : 도 수질관리과 하수도담당  
(055)211-6755

## 경남도, 2015년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추진원활

▶ 도내 58개 지구 592,036필지 세계측지계  
변환 추진

경남도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해 오던 지적  
측량 기준을 동경측지계 방식에서 탈피하여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세계측지  
계 변환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일제강점기부터 일본 동경원점을  
기준으로 설정된 동경측지계를 100여년에 걸  
쳐 사용해 와 세계표준과 비교하면 약 365m  
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  
한 사업으로 2020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는  
국가시책사업이다.

도는 2015년에는 도내 14개 시·군·구 58개  
지구 592,036필지를 세계측지계를 기준으로  
변환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국  
제표준의 측량기술 및 제도 등에 있어 세계  
각국과 공유가 가능해 질 것이므로 전망된다.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은 절차상으로 크게 실  
시계획 수립, 사업지구승인, 공통점 선정, 공  
통점 관측, 변환계수 산출, 좌표변환, 현지검  
증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 가운데 사업 절차상 전체적으로 큰 비중  
을 차지하는 공통점 관측 및 좌표변환 등 이  
마무리되어 80%가 넘는 진행률을 보이고 있  
다.

도는 시·군·구의 일정에 따라 사업지구 일필  
지 경계검증 등을 실시한 후 연내 사업을 조  
속히 마무리 하고,

오는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세계측  
지계 변환 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강식 경남도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세계측  
지계 좌표변환 사업을 통해 GPS에 의한 위성  
측량이 가능해짐으로써 신속·정확한 측량성과  
제시가 가능해져 땅과 관련한 경계분쟁 해소  
와 재산권 행사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  
고 덧붙였다.

■ 자료 : 도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장  
(055)211-4424

## 김해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개관 및 무역박람회 개최

김해시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핵심역할을 할 김해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개관에 맞춰 11월12일(목)부터 11월14일(토)까지 3일간 무역박람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3월부터 주촌면 골든루트산업단지 내에 314억원의 사업비로 건립한 김해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는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1만 1774㎡로 기업지원시설로는 금융, 관세, 출입국관리사무소, 우체국, 특허사무소 등이 입주하게 되고 김해시 관내 8만여 근로자의 복지 지원을 위해 건강검진센터와 체력단련실을 운영하게 된다.

중소기업의 수출 상담과 기업관련 국제 행사를 위해 국제회의장과 대·소연회장, 세미나실, 비즈니스상담실 등으로 공간배치를 하였다.

또한 비즈니스센터 5층 국제회의장과 야외부스에서는 김해시 관내 중소기업의 제품 전시, 판매 행사를 실시하고 11월12일 오전11시 개관식을 시작으로 비즈니스센터 5층 국제회의장에서 김해시, 김해고용센터, 대한상공회의소 부산인력개발원 주관으로 구인기업 20개사와 구직자 220여명이 참여하는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오후2시부터는 비즈니스센터 4층 세미나실에서 내한 바이어와 기업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해시 투자설명회도 열린다.

이 자리에서 김해시와 경남개발공사, 김해테크노밸리 관계자들이 김해시의 투자 여건과 서김해일반산업단지, 테크노밸리일반산업단지 투자현황을 각각 소개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진다.

다음날인 13일 오전10시부터는 김해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5층 국제회의장에서 11개국 21명의 해외바이어와 관내 50여개사 수출관계자들이 참가하는 수출상담회를 연다.

바이어와 국내 업체 간 1대1 상담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수출상담회에서는 미국, 독일, 중국, 일본, 호주, 스페인,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뉴질랜드, 몽골 등 11개국에서 21명의 바이어가 내한해 선박기자재, 자동차 부품, 보트기자재, 향노화 화장품 등을 중심으로 수출 상담을 할 예정이다.

또한 13일 오전10시부터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하는 FTA(자유무역협정)설명회도 열린다. 이날 설명회에는 한국무역협회 소속 김정엽 관세사가 참석하여 김해시 제조산업의 경쟁력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김해시는 이번 무역박람회 기간 중 500억 원 이상의 상담과 100억 원 이상의 계약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성열 혁신경제국장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관내 7천여 개의 기업들 중 상당수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이 같은 무역박람회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번 무역박람회가 관내 기업들의 활성도를 높이고 해외시장 개척의 새로운 교두보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 : 김해시 투자유치과  
(055)330-4784

## 밀양내이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기공식 개최

2012년 4월 경남도로부터 조합설립 및 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밀양내이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기공식이 지난 21일 오후 2시 밀양시 내이동 1234-8번지 일원에서 이영춘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원, 박일호 밀양시장, 허홍 밀양시의회 의장, 시공사 관계자, 지역주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본 사업은 지난 2000년 6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었으나, 건설경기 악화 등으로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해 장기간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으며, 최근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확정 발표 이후 시공사가 참여하게 되면서 드디어 첫 삽을 뜨게 되었다.

본 사업은 공동주택지(아파트용지) 57,000㎡, 일반주택지 127,070㎡, 도로, 공원, 학교 등 공공용지 100,330㎡ 등 모두 284,400㎡로 개발하는 민간개발방식의 사업이다.

본 지구는 나노융합 국가산단, 시청, 법원과 입지예정인 한국폴리텍대학을 잇는 간선도로 변에 있어 향후 발전가능성이 높으며, 국가산단 조성 후 입주 시점이 되면 개발수요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밀양시 관계자는 “현재 우리시에는 이날 기공식을 가진 내이3지구 외에도 삼문지구와 교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사업들이 모두 완료되면 도·농 복합도시인 밀양시의 중심 도심권 형성으로 살기 좋은

정주여건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며, 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공식은 기념식을 시작으로 여러 명의 인기가수들이 축하공연을 가지면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기원하고, 조합원을 비롯한 지역주민들과의 화합과 소통의 장이 되었다.



■ 자료 : 밀양시 도시과  
(055)359-5278

## 거가대교관광지 조성사업 착공식 개최

1000만 관광객시대를 이끌어갈 거가대교관광지 조성사업 착공식이 오는 12월 4일 오후 2시 장목면 농소리 일원 농소항 물양장에서 개최된다.

지난 11월 3일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문석 전무가 거제시를 방문하여 거제시장과 면담을 가졌다. 문석 전무는 12월 4일 착공식을 시작으로 2018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국내 최고의 리조트 건설을 위해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할 것을 밝혔다.

거가대교관광지 조성사업은 장목면 농소리 일원 112,580㎡ 부지에 총사업비 1,936억원을 투입하여 콘도미니엄, 컨퍼런스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거제시의 체류형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핵심적인 사업이다.

거제시는 지난 2012년 12월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승인 이후 토지매입, 수용재결승인까지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2010년 한화호텔앤드리조트와 MOU 체결에서부터 실시협약 체결까지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결과 좋은 결실을 맺게 되었다.

권민호 거제시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거가대교관광지 조성사업은 민간투자유치의 우수 사례로 손꼽히고 있는 사업이다.

이번 거제시와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협력으로 추진되는 거가대교 관광지가 완공되면

거제시 북부권 관광인프라 확충으로 지역균형 발전은 물론 국제적인 해양휴양관광지로서 거제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자료 : 거제시 관광과  
(055)639-4193

## 양산시 노후산단 경쟁력강화 설명회 개최

양산시에서는 4일 양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양산일반산업단지 입주 기업체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후산단 경쟁력강화사업」 추진 계획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양산일반산업단지」가 지난 7월 정부의 「노후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대상단지로 선정됨에 따라, 2016년부터 시행되는 재생사업지구 지정 및 재생계획 수립 계획에 대비하여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본 사업의 그동안의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하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이다.

「양산일반산단」은 유산동 일원에 약 152만 8655㎡ 규모로 1982년 4월에 조성 완료되어 올해로 33년이 된 양산 최초의 산단으로, 향후 10년간 국비, 지방비등 총 1500억원이 투입되며, 이를 통해 그동안 숙원사업이었던 제2양산대교 건설을 통하여 국도 35호선의 교통혼잡해소는 물론 산단내 단절도로 연결, 산학캠퍼스설치 및 혁신융복합센터, 근로자 복지시설, 직장어린이집 등이 조성된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기업체 대표는 “금번 노후산단 리모델링사업이 조기에 착수되어 극심한 교통체증이 빠른 시일에 해소되고, 중점 육성업종의 업종고도화를 통하여 산업기술이 첨단화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양산산단이 본 사업을 통하여 과거 양산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했던 영광을 재현하고, 양산지역 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발판이 마련 될 수 있도록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자료 : 양산시 경제기업과  
(055)392-2321

### 2.8억건의 개방 건축물정보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다.

▶ 건축인허가, 건축물대장 등 4종 53개 오픈 API 서비스 우선 실시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국민 중심 서비스 정부 3.0 정책’에 따라 민간에 개방한 2.8억 건의 건축물정보를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2015년 11월 20일(금)부터 4종 53개 오픈 API\* 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 오픈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란 다양한 서비스 및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외부 개발자나 사용자 등과 공유하는 정보프로그램

○ 금년 2월 1일부터 민간에 개방한 건축물정보는 원시데이터\* 형태로 사용자가 직접 다운로드받아 별도의 가공 과정을 거쳐야만 사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다.

\* 건축물정보 원시데이터는 엑셀, 텍스트 형식의 자료로 제공됨

○ 그러나 이번에 시범으로 제공하는 4종(건축물대장, 건축인허가, 주택인허가 및 폐쇄 건축물대장) 53\*개 오픈 API를 활용하면 사용자는 프로그램에 직접 연계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쉽게 개발할 수 있다.

\* 건축물 부속지번 조회 등 건축물대장 분야 10개, 주택유형조회 등 건축인허가 분야 17개, 호별개요 등 주택인허가 분야 16개, 폐쇄말소대장 분야 10개

○ 이와 같이 사용자가 오픈 API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면 건축물정보를 이용한 비즈니스를 수행하거나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드는 시간과 노력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개방 건축물정보의 활용이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번에 시범운영하는 오픈 API 서비스는 행정자치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사회·경제적으로 개방효과가 큰 국가중점 개방데이터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 지난 2월에 개방된 건축물정보를 우선 제공하고, 12월말부터는 추가 개방되는 건물 에너지 사용량 정보, 건축물 점검정보 등 2종의 정보를 추가하여 총 6종 59개로 확대한 오픈 API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 건축물정보 오픈 API 서비스의 이용은 11월 20일(금)부터 ‘건축데이터 민간개방시스템’ 홈페이지(open.eais.go.kr)를 경유하거나 공공데이터포털 (data.go.kr)에 누구나 직접 접속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과 절차에 대한 전화(070-7866-0907, 1566-0025) 문의도 가능하다.

■ 자료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044)201-3773

## 건축물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쉬워진다.

- ▶ 건축설비로 간주 건축물과 함께 설치
  - 보급 확대·투자유발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앞으로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자가용이든 판매용이든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건축설비로 보아 용도지역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그 동안, 건축물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설비가 자가용이면 건축물의 부속시설, 판매용이면 발전시설로 지자체별로 다르게 해석하여 혼란스럽고,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을 저해한다는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 이에 장관주재로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10.1, 대한상공회의소)를 개최하여 태양광 발전설비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 회의 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자가용·판매용과 무관하게 건축물의 부속 건축설비로 간주하여 쉽게 설치되도록 운영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시달(15.11.6)하였고, 특히,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하여는 안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함께 시달하였다.

○ 시달한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축물의 안전 및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감안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의 최대 높이를 건축물 옥상 바닥(평지붕) 또는 지붕 바닥(경사지붕)으로부터 5미터로 제한하였다.

- 특히, 기존건축물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로 인하여 증가하는 수직하중, 적설하중 및 풍하중 등 구조·안전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 건축물 높이에 태양광 발전설비의 높이를 합쳐서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피뢰침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 태양광 발전설비의 탈락 및 유지관리를 감안하여 건축물 옥상 난간(벽) 내측에서 50센티미터 이내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태양광에너지 설치 관련 상이한 법령해석에 따른 민원 해소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태양광발전설비 투자유발 및 시설확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 자료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3761

## 여기가 “해안·내륙권 개발사업 투자최적지” 입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해안·내륙권 개발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11월 26일 서울 강남구 언주로 소재 상록회관에서 “해안권 및 내륙권 개발사업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한다.
- 이번 투자유치설명회에서 소개될 해안권 및 내륙권별 유망한 투자 사업은 경북 고래불해양복합타운 등 9개 관광사업과 경기 화성전곡해양산업단지 등 3개 산업단지사업이며, 7개 시·도와 10개 시·군 지역에 소재해 있다.
- 투자유치 대상지 총 12개 지역은 민자가 일부 유치되어 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부문 예산이 일부 투입 되어 적극적으로 민자 유치의 의지를 가지고 추진되는 곳으로,
- 지역별로 사업 입지 및 시장 여건, 주요 개발계획 현황, 투자 시 예상되는 수익성, 투자 강점 등 투자자 관점에서 세부사업 계획을 소개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 해안은 빼어난 자연 경관을 보유하고 있고, 내륙권은 생태자원의 보고로서 앞으로 동북아 경제산업 중심축으로서 성장 잠재력이 큰 새로운 블루오션 지역이어서 투자자들이 해안권 및 내륙권 개발사업 투자를 통하여 보다 큰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 “이번 투자유치 설명회를 통해서 수집된 투자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하고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서 국내외 투자자에게 해안권 및 내륙권별 민간투자사업의 투자유치 상황과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또한, “지난 2년간 투자유치 설명회에 참여했던 ‘부산 동부산관광단지’ 등 6개 사업이 지금까지 6,465억원의 투자계약을 체결 한 바 있어, 이번 투자유치 설명회를 통해서도 많은 성과가 이루어지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 경상남도가 추천하는 투자적지로서는 첨단 로봇산업과 연계한 국제적 종합휴양관광단지인 ‘창원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를 비롯하여, 통영의 조선 관련 산업의 중추적 클러스터를 구축할 ‘통영 조선기자재 산업단지 조성’, 산림자원과 온천자원을 활용한 향노화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거창 산림생태 문화체험단지 조성’, 친환경 해양형 휴양단지 조성을 통해 거제시 관광활성화를 견인할 ‘거제 에코리조트 조성사업’ 등 이다.

■ 자료 : 국토교통부 해안권발전지원과  
(044)201-4554

## 국가기술자격의 New 패러다임 ‘16년 과정평가형자격 교육·훈련과정 확정

▶ 귀금속가공산업기사 등 25종목 총 129과정 지정·시행

□ ‘16년 시행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교육·훈련과정이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고용노동부장관) 심의를 통해 11월6일 확정되었다.

○ 이번에 지정된 교육·훈련과정은 ‘15년 하반기 추가로 시행할 기계설계산업기사,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등 총 20개 과정(5종목 18기관)과 ‘16년도 귀금속가공산업기사, 컴퓨터응용밀링기능사 등 총 129개 과정(25종목 84기관)이다.

\* (지정 명단) 붙임 참조, 자세한 내용은 NCS홈페이지([www.ncs.go.kr](http://www.ncs.go.kr)) 확인 가능

□ 과정평가형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근거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따라 설계된 교육·훈련과정을 체계적으로 이수한 교육·훈련생에게 내·외부 평가를 통해 국가기술자격증을 부여하는 새로운 개념의 국가기술자격 취득 제도로서 ‘1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을 산업부문별·수준별로 국가가 체계화한 것

□ 이번에 지정된 교육·훈련 과정은 공개 모집기간(8.10~9.4) 동안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과정 중 산업현장 및 교육·훈련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단의 엄정한 1·2차 심사(9.10~10.8)를 거쳐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되었다.

□ 지정 교육·훈련기관은 교육·훈련생을 대상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 교육·훈련 및 내부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해당 교육·훈련생들은 모든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최종 외부 평가에 응시하여 합격할 경우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 고용노동부는 금번 지정된 과정이 공정하고 수준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분기 1회 이상 교육·훈련과정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내부평가 결과 확인 및 교육·훈련과정의 체계적 운영 여부에 대한 질 관리를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 한편,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훈련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 교육·훈련기관의 모집기간에 신청 가능하며, 기관별 모집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NCS 홈페이지([www.ncs.go.kr](http://www.nc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박종길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과정평가형 자격은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능력 중심의 자격 취득 방식”이라며, “현장에서 일 잘하는 인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엄정한 관리 및 평가를 통해 운영할 것이며, 점진적으로 대상 종목과 운영범위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자료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044)202-7287

## 건설현장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도입한다.

▶ 11.13(금) 노·사정 실무TF 제1차 회의 개최

- 고용노동부는 건설사용자단체(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및 근로자단체(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와 건설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개발보급을 위한 노사정 「실무TF」를 구성·운영하기로 하고
  - 11월 13일(금)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직종별 표준근로계약서 개발·보급 추진 계획을 논의하였다.
- 이번 건설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실무TF는 「제3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15.8.4. 국무회의 보고)의 후속 조치로서,
  - 법정수당의 미지급 등 법정 근로조건 준수 관행이 미흡한 건설현장의 기초고용질서를 확립하고,
    - 구두계약 등에 따른 노사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서면근로계약 작성 관행을 건설현장에 정착시키려는 조치이다.
- 「실무TF」는 건설현장의 경험이 많은 건설업종 관련 노사단체 관계자 각 2명, 근로감독관 등 정부 실무자 및 전문가(공인노무사)로 구성하여 ‘16.12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 실무TF(10명): 노사단체 추천자 각 2명, 공인노무사 2명,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장 등 3명, 건설근로자공제회 1명 등

- 주요기능은 ① 건설근로자 서면근로계약서 운영실태 조사, ② 직종별 표준근로계약서 개발보급 및 홍보, ③ 기타 직종별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실태 점검 등이다.
- 정형우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건설현장에서 법정근로조건 등 기초고용질서 확립은 건설 노동시장 정상화의 선결요건”이라고 강조하고,
  - “노사정이 협력하여 건설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개발·보급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법정근로조건 보호 및 고용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 자료 : 고용노동부 지역고용산업정책과  
(044)202-7413

## 내년 봄 가뭄 대비 1월부터 '가뭄 예·경보' 도입

▶ 하천정보센터→수자원정보센터 확대...전국 가뭄 모니터링 강화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계속된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가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예·경보를 도입·시행한다.

○ 정부는 금번 가뭄을 계기로 부처 간 물 관련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9월 24일 국가정책조정회의 시 '수자원의 체계적 통합관리 방안'을 확정한 바 있으며, 이번 예·경보 도입은 이의 일환이다.

□ 국토교통부는 한강홍수통제소의 하천정보센터를 「수자원정보센터」로 확대 개편해 전국 가뭄 모니터링 및 국가 차원의 예·경보를 담당한다.

○ 한국수자원공사(K-water) 내에 「가뭄정보분석센터」를 신설하여 예·경보를 위한 제반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등 가뭄 대응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 이번에 확대 개편되는 국토교통부 수자원정보센터는 물 정보 공동 활용을 목적으로 기 구축·운영 중인 '물정보유통시스템(WINS)\*'을 고도화하여 산재된 가뭄정보를 효과적으로 통합관리·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 새롭게 수립되는 댐 및 하천 등의 가뭄

예·경보 발령 기준과 절차 등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선제적인 가뭄대응 및 가뭄피해 최소화에 앞장설 계획이다.

\* 물관리정보유통시스템(WINS; Water Management Information Network System)은 농림수산식품부, 기상청 등 5개 부처 12개 기관에서 수문기상 등 66개 물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2004년 국토교통부 구축)

□ 아울러 한국수자원공사(K-water) 내에 설치되는 가뭄정보분석센터에서는 실시간 물이용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관련 부처, 지자체 및 물 관리 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가뭄대응 의사결정을 돕게 된다.

○ 또한, 국민들에게는 앞으로 내가 쓸 수 있는 물의 양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 지역의 제한급수가 언제까지 지속되는지 등 주요 관심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제공하여 자율적인 물 절약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이를 위해 11월 26일 국토교통부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수자원정보센터 추진단」 발족식을, 11월 27일 대전 한국수자원공사(K-water) 본사에서는 「가뭄정보분석센터」 개소식을 각각 진행 후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6년 봄 가뭄이 예상되는 수도권 및 충청지역을 대상으로 2016년 1월부터 시범운영을 개시하고, 연말까지 전국에 걸쳐 가뭄 모니터링 및 예·경보를 확대할 계획이다.

■ 자료 :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과  
(044)201-3591

##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 시 지역업체 참여 폭 넓어진다!

-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면 개정·고시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업자와 각종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시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전면 개정하여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 이하, 「사업자 선정지침」으로 표기
- 이번에 전면 개정된 사업자 선정지침은 지침 운영과정에서 누적된 민원 사례를 바탕으로 입주자, 관련업계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역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기회 확대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를 도모하고자, 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시 평가항목으로 ‘지원서비스능력\*’을 신설함
      - \* 기술·인력·장비 등이 공동주택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능력(배점 5점)
    - 또한, 기업신뢰도(경영상태) 평가 시 신용평가 등급 간 평가배점 격차\*를 축소하여 재무상태가 건실한 지역의 중·소규모 업체가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함
      - \* (현행) 신용등급별로 0~15점 부여 (개정) 신용등급별로 11~15점 부여

- 수의계약 대상사업 확대 등
  - 분뇨수집, 정화조 청소 등 타 법령에서 수수료율을 정하고 있는 사업 등을 수의계약 대상에 추가\*하고,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수의계약 금액을 상향\*\* 조정
    - \* 분뇨 수집·정화조 청소, 보험계약, 본 공사 금액의 10% 이내에서 추가공사 등
    - \*\* (현행) 200만원(‘10년 기준) → (개정) 300만원
- 입찰의 무효 사유의 명확화
  - 입찰의 무효 사유\*를 구체화하여 발주처와 입찰자간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입찰자에게 알리도록 하여 입찰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함
    - \* (현행) 7개 항목 → (개정) 13개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명시
- 적격심사 낙찰자 결정방법 개선
  - 적격심사제에서 최고점을 받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최고)가격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최저(최고)가격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토록 하여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함
    - \* (현행)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여 입찰가격이 높은 업체가 선정되는 사례 발생

○ 입찰가 상한 공고를 위한 자문역 확대

- 입찰가격의 상한을 결정 할 수 있는 전문가의 범위가 건축사·기술사 등으로 한정되어 과도한 자문비용이 발생하는 등 제도 적용에 어려움이 있어 주택법령에 의한 자문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자문기구에서도 입찰가격 상한을 검토 할 수 있도록 함

\* 「주택법」 제45조의6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공동주택관리지원기관(우리家함께 행복지원센터 1670-5757)

○ 민간 전자입찰시스템 사업자 지정기준 마련

- 전자입찰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하는 경우 민간이 운영하는 전자입찰시스템도 사용 가능하게 됨에 따라 '민간 전자입찰 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갖추어야 할 최소 기준\*을 마련함

\* 기술인력(6명 이상), 기업신용평가(B등급 이상), 시스템 기능 및 보안 사항 등

- 국토부는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내용 시행으로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져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자료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2

## 국토부, 지자체 임의 건축규제 대폭 개선

▶ 서울, 대구, 대전, 세종, 제주 100%, 전국평균 91% 정비완료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전국 지자체에서 법령에 근거없이 운용중인 1,171건의 임의규제 중 91%(1,063건)를 정비('15. 9월말 기준)했다고 발표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지속적인 정부의 건축규제 개선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임의규제 때문에 국민들의 고충은 여전하다는 각계의 지적에 따라, '14년부터 임의규제 조사에 착수하여 전국적으로 총 1,171건의 임의 건축규제(임의기준·과도한 심의기준, 부적합조례)를 확인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정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 지자체 임의규제 정비결과

- 이와 관련해 전국 17개 시·도 임의규제 정비현황을 점검한 결과 '15년 9월말 기준으로 총 1,171건의 규제 중 91%인 1,063건이 입법예고, 지방의회제출 또는 폐지·정비 되었으며, 나머지 108건은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시·도의 협조로 전반적으로 상당한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이나 17개 시·도의 규제 개선 정비수준이 지자체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 대구, 대전, 세종, 제주는 100% 정비완료인 반면, 부산, 광주, 강원, 인천은 8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경기도는 발굴된 임의 건축규제가 179건으로 가장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히 정비작업을 추진하여 비교적 우수한 정비 진척도(97.8%)를 보였다.

### 대표적 정비사례

- 대표적인 정비사례로는 서울 강동구, 서초구, 마포구 및 경기 군포시 등에서 법령에서 규정한 다락설치를 임의로 제한하고 있던 것을 폐지하였고,
- 법정기준을 초과하여 주차확보를 요구하거나 임의기준으로 기계식주차장을 제한 하였던 천안, 전주, 구미, 부산, 부천 등 17개 지자체에서 주차관련 임의기준을 폐지하였다.
- 녹지지역에서 건축시 조경의무 설치대상에서 제외되나 녹지지역에서도 조경면적을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하였던 고양, 삼척, 논산 등 50개 지자체에서 관련조례를 폐지·정비하였다.
- 또한 상업지역 등에 주변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여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았던 전국의 56곳 지자체중 용인, 속초, 아산, 포항 등 54곳에서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공개공지 확보시 인센티브 적용으로 건축비용절감 및 건축투자환경을 개선하였다.

### 지속적인 임의규제 관련 모니터링

- 국토부는 이번 정비결과에 따른 우수 지자체에는 포상을 계획하고 있으며, 입법예고조차 되지 않고 있는 나머지 108건에 대하여는 최대한 금년 내 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국무조종실, 행자부와 공조하여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침체된 경기 회복과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해 임의규제 정비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금년 내 임의규제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며, 건축규제 모니터링센터를 통해 기업활동을 저해하고 국민들의 삶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점검하고, 규제 발견 시 상시 정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규제발굴 및 모니터링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 자료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3761

###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1. 개정사유

- 최근 국내 SOC 투자 감소로 청년층 신규인력 취업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청년층 고용을 유도하여 건설분야 일자리를 창출하고,
  - 아울러, 법령 개정내용 반영 및 그 간 PQ기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 개선하고자 함

#### 2. 주요 개정내용

- 발주청의 세부평가기준 개정 절차 간소화(안 제4조제2항)
  - 발주청에서 세부평가기준 개정시 심의가 불필요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심의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 제출방법 개선(안 제5조제1항)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평가하고 있으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전자문서 형태로도 제출받아 평가할 수 있도록 변경
- 재정상태 건설도 평가방법 완화(안 별표1)
  -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재정상태 건설도 평가를 신용평가등급 이외에 재무비율방식도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완화
- 청년기술자 신규고용에 따른 가점 부여(안 별표1, 별표2, 별표3)
  - 청년기술자 고용 유도를 위해 용역업체의 청년기술자 신규 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 청년기술자 신규 고용율 2% 이상 0.1점, 3% 이상 0.2점, 4% 이상 0.3점

□ 건설기술용역 실적 확인 방법 등 개선(안 부표1)

- 법령 개정에 따라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용역수행실적 및 신용도(입찰참가제한 등)는 건설기술용역 실적확인서(시행규칙 제27조 별지 제31호 서식)를 제출받아 평가토록 명시

□ 해외건설사업관리 경력 인정(안 부표2)

-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용역으로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건설사업관리 경력”으로 인정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기술기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044-201-3566~35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 국토교통부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재검토키한 재설정을 위한 개정안 행정예고

## 1. 개정이유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대해 재검토키한이 2015. 08. 21. 만료 예정이나 업무처리를 위해 고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에 따라 재검토키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재검토키한을 2015년 8월21일에서 2018년 8월 21일까지 재설정하고자 함(제19조)

##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문화경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 :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및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1. 개정이유

법적근거 없이 고시로 운영중인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의 일시정지 및 인정 취소 조항을 정비하고, 붙박이가구의 크기가 클수록 오염물질 발생량이 커지나, 대형평형은 거실의 체적도 크므로 이를 고려한 붙박이가구 오염물질 방출량 평가방법을 개선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의 일시정지(제23조) 및 취소(제24조제2항) 조문 삭제

### 나.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 대형침버법으로 붙박이가구에 대해 노출예상농도 계산 시 적용하는 표준모델룸 부피를 다음과 같이 구분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 40㎡
  - 주거전용면적 85㎡ 초과 : 50㎡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번호 : 044-201-33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 : 국토교통부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1. 개정이유

구조 안전상 위험한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자의 생명과 주거 안정을 위해 매입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고, 매입임대주택이 포함된 지역에서 재건축 등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와 매입임대주택을 재건축한 주택과 교환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하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위험주택 거주자에게 매입임대주택 우선 공급(안 제51조제3항)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안전도가 불량한 주택(E등급)에 거주하는 저소득 거주자의 생명과 주거의 안정을 위해 거주자에게 매입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함
- 2) 주거급여 조사과정에서 ‘구조 안전상 심각한 결함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주택’으로 확인되어 수선유지급여를 받지 못하는 거주자에게 매입임대주택을 우선 지원하도록 함

나. 재건축 등 사업에 포함된 노후 매입임대주택 교환 및 매각 허용(안 제64조의6)

- 1) 노후한 매입임대주택을 포함하여 일단의 지역에서 재건축 등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주체와 매입임대주택을 재건축한 주택과 교환하거나 일정한 경우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함
- 2) 교환하는 경우 매입임대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종류, 면적 등을 고려하되 매입임대주택 감정평가액 이상인 재건축 주택과 교환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가격 이상으로 매각하도록 함
- 3) 시행자는 교환 또는 매각하는 경우 사업주체와 교환할 재건축 주택 및 입주자 이사비용 등 비용부담에 대해 협의하고, 협의결과와 이주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4) 교환받은 주택은 매입임대주택으로 간주하고, 매각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서 매각한 주택 수량만큼 매입하여 이주한 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3. 의견제출

이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 12. 15(화)까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 : 국토교통부

#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1. 개정사유

안전사고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실시공 등 안전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기술역량 제고를 위해 특급기술자 기준점수를 상향 조정하고, 건설관련 유사학과에 대한 학력 인정 범위 확대 및 국가기술자격 추가 인정 등을 통하여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일부 개선

## 2. 주요 개정내용

### □ 특급기술자 등급기준 상향조정(안 제5조 별표 3 제1호)

- 건설기술자의 안전역량 제고를 위하여 설계·시공 및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특급기술자 등급기준을 상향

⇒ 특급기술자 등급기준 : (현행) “75점 이상” → (개선) “78점 이상”

※ 미래창조과학부(한국기술사회)와의 협의사항('14.5.16)을 반영

### □ 건설관련 유사학과에 대한 역량지수 개선(안 제5조 별표 3 제2호)

- 직무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건설관련 학과를 졸업한 경우 건설기술자 학력지수(ICEC)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필요

⇒ 유사학과를 졸업한(전문대학 이상) 건설기술자의 역량지수를 고졸미만에서 고졸전공자 수준\*으로 상향

\* 이공계 전문대 이상 졸업자의 비전공 직무분야 학력지수 :

10점(현행) → 15점(개선)

※(사례) 토목↔건축분야, 도시·교통↔토목분야, 기계↔건축분야 등

□ **건설관련 국가기술자격 종목 확대** (안 제3조 별표 1)

○ 신설된 국가기술자격(에너지관련) 등에 대하여 건설관련 국가기술자격 종목으로 추가 인정

합계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7	2 -금속도장 -비파괴검사관련종목	1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태양광)	2 -금속도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태양광)	2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태양광) -비파괴검사관련종목

※(신설)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기사·산업기사·기능사 3종목

(추가) 금속도장기능장·산업기사, 비파괴검사관련종목기능장·기능사 4종목

□ **군(軍)경력 인정 범위 개선**(안 제6조제6항)

○ 군경력은 일부 건설관련병과(공병병과·시설병과 또는 측량분야 병과 등)에서 복무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실제로 수행한 건설공사업무에 대하여 경력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음

⇒ 공병병과·시설병과 또는 측량분야 병과 이외에도 군복무중 건설공사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다면 기술경력으로 인정토록 개선

\* 공병학교장, 시설실, 소속부대장 등이 확인한 경력확인서로 확인

□ **기타 자구 수정 및 보완 사항 등**

○ 개정된 관련 법령명 반영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기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044-201- 3555 ~ 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 국토교통부

## 신기술 정보

### 에멀전계 재생첨가제를 사용한 무시멘트 상온 재생 아스팔트 혼합물 제조공법

#### 1. 신기술개발자

법 인 명	(주) 태산파우텍
-------	-----------

#### 2. 신기술 개요

- 지정번호 : 제 777 호
- 명 칭 : 에멀전계 재생첨가제를 사용한 무시멘트 상온 재생 아스팔트 혼합물 제조공법
- 기술분야 : 토목>도로>도로기층
- 내용요약

##### (1) 범위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고 에멀전계 재생첨가제 및 페아스팔트 순환골재와 신규골재를 비가열식으로 혼합한 도로기층용 상온 재생 아스팔트 혼합물 제조공법

##### (2) 내용

이 신기술은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고 에멀전계 재생첨가제 및 페아스팔트 순환골재와 신규골재를 비가열식으로 혼합한 도로기층용 상온 재생 아스팔트 혼합물 제조공법이다.

### T형 데크플레이트와 발포폴리스틸렌 경량중공재를 이용한 중공슬래브 공법

#### 1. 신기술개발자

법 인 명	에스에이치공사 외 3개사
-------	---------------

#### 2. 신기술 개요

- 지정번호 : 제 778 호
- 명 칭 : T형 데크플레이트와 발포폴리스틸렌 경량중공재를 이용한 중공슬래브 공법
- 기술분야 : 건축>철근콘크리트>철근콘크리트 골조
- 내용요약

##### (1) 범위

T형 데크플레이트에 슬래브 하부철근을 배근 후 경량중공재(발포폴리스틸렌 재질)와 고정장치(일방향 : 발포폴리스틸렌 고정키, 이방향 : T바+앵글)를 설치하고, 슬래브 상부철근을 배근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경량슬래브 구조체를 형성하는 중공슬래브 공법

##### (2) 내용

이 신기술은 일방향과 이방향 슬래브에 모두 적용이 가능한 중공슬래브 공법으로 T형 데크플레이트에 슬래브 하부철근을 배근 후 경량중공재(발포폴리스틸렌 재질)와 고정장치(일방향 : 발포폴리스틸렌 고정키, 이방향 : T바+앵글)를 설치하고, 슬래브 상부철근을 배근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경량슬래브 구조체를 형성하는 중공슬래브 공법이다.

## 2015년 제9회 지방건설기술심의 개최 결과

- 심의일자 : 2015. 11. 27.(금)
- 건 명 : 4건(실시설계 3건, PQ 1건)

의안번호	발주청	심 의 안 건	심의결과 (심의의결)
2015-09-01	합천군 (상하수도사업소)	합천 울곡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실시설계) 사업개요 : 배수분관 L=29.72km(D80~250mm), 149억원	조건부 채택
2015-09-02	합천군 (상하수도사업소)	합천 용주가호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실시설계) 사업개요 : 하수처리시설 660m <sup>3</sup> /일, 112억원	조건부 채택
2015-09-03	양산시 (산단조성과)	양산 석계2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실시설계) 사업개요 : 진입도로 L=1.33km(B=20m), 109억원	조건부 채택
2015-09-04	진주시 (농정기획과)	진주시농업기술센터 신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조건부 채택

## 2015년 제10회 지방건설기술심의 개최 계획

- 심의일자 : 2015. 12. 18.(금)
- 건 명 : 3건(실시설계 2건, PQ 1건)
- 실시설계 적정성 심의 2건

의안 번호	사 업 명	사 업 개 요	발주청
2015-10-01	진주공공 하수처리시설 악취저감시설 설치사업	· 위 치 : 진주시 초전동 일원 · 사업내용 : 1단계 밀폐형 덮개 설치(1차침전지, 생물반응조, 2차침전지 등) 탈취기 설치(침사지, 농축조, 등) · 사 업 비 : 279억 원 · 사업기간 : 2016 ~ 2017년(2년)	진주시 (하수과)
2015-10-02	통영 산양~세포간 (지방도 1021호선) 도로건설공사	· 위 치 : 통영시 미수동, 산양읍 일원 · 사업내용 : 도로개설 L=2.30km, B=22m · 사 업 비 : 104억 원 · 사업기간 : 2016 ~ 2019년(4년)	통영시 (건설과)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심의 1건

의안 번호	안 건 명	발주청
2015-10-03	양산 수질정화공원 에너지자립화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양산시 (하수과)

■ 자료 : 도 건설지원과 기술심의를담당  
(055)211-2926

## 계약심사 현황

(단위:백만원)

기 간	분 야		건수	심사현황			비고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2015년 11월	계		80	120,278	115,585	4,693	3.90%
	공사	토목	32	81,075	77,769	3,306	4.08%
		건축	8	16,504	15,899	605	3.67%
		기타	6	6,792	6,301	491	7.23%
	용역		7	12,314	12,069	245	1.99%
	물품		27	3,593	3,547	46	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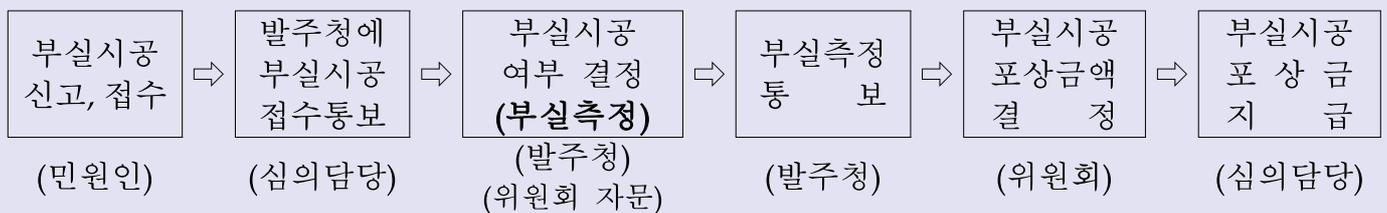
**■ 자료 : 도 회계과 계약심사담당**  
**(055)211-3848**

## □ 건설공사 부실방지를 위한 신고포상금제 운영 안내

### I. 부실시공 신고대상

- 경상남도(직속기관 및 사업소 포함)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상남도가 설립한 공사공단이 발주한 경상남도(www.gsnd.net) 및 건설정보(www.gnci.gsnd.net) 홈페이지에 게재되어있는 도급액 50억이상 건설공사

### II. 처리절차



### III. 포상금 지급기준

부실시공등급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과한 부실벌점	포상금 지급기준
1 등급	벌점 3점	500만원 이하
2 등급	벌점 2점	300만원 이하
3 등급	벌점 1점	100만원 이하
해당없음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하자보수로 시정이 가능한 경우 및 부실시공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없음

※ 부실벌점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제5항 별표8

### IV. 신고방법(반드시 실명으로 신고하여야함)

- 전화신고 후 관련서류 송부(우편 또는 방문신고) : 055-211-2922~2926
- 팩스를 이용한 신고 : 055-211-2919
- 신고서식 : 상기 홈페이지에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

## □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시스템 운영 안내

-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1·2종 시설물이 포함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을 전담 검토하고 있습니다.
- 현재 안전관리계획서를 책자 형태로 제출받고 있으나,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의 번거로움 해소와 검토업무 간소화를 위해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시스템<sup>1)</sup>” 마련하고, 2015. 12. 1부터는 본 시스템으로 제출<sup>2)</sup>받아 검토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건설안전정보시스템([www.cosmis.or.kr](http://www.cosmis.or.kr))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시스템 (안내 공지)

2) 기존의 책자로 접수되는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와 병행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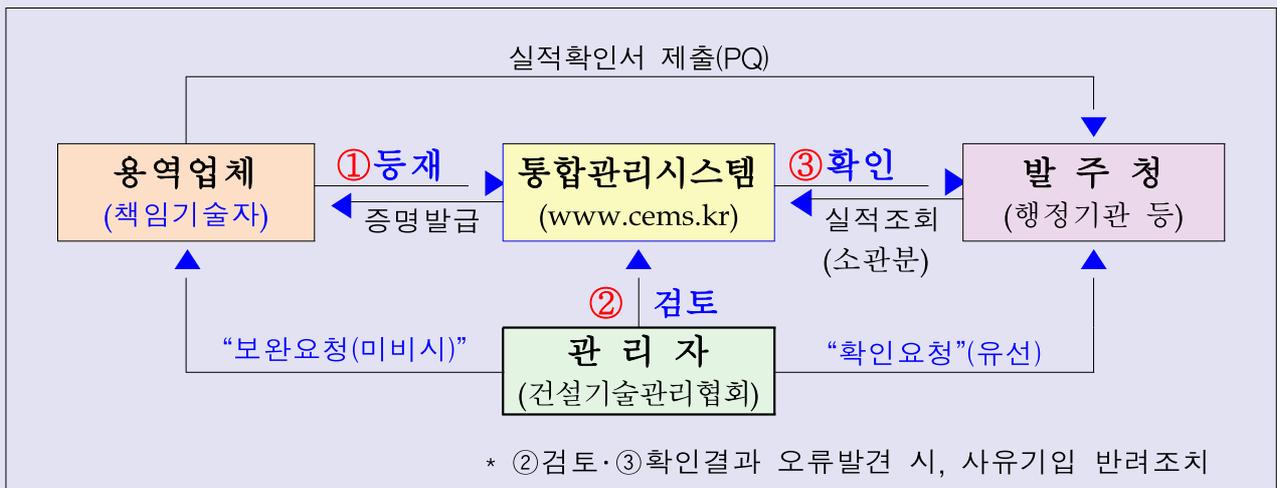
■ 자료 :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안전본부

(031)910-4042

## □ 「건설기술용역 통합(실적)관리시스템」 안내

- 관련 법 : 건설기술 진흥법 제30조(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 입력대상 용역 : 설계, 감리, CM 등 공공분야의 건설기술용역
- 입력시기 : 용역의 계약체결 후, 설계 변경 후, 준공 후 10일 이내 기술자 변경시 즉시 입력
- 시스템 사용자 : 발주기관 계약담당자/사업관리담당자  
용역사 대표자 및 용역책임자(원도급·하도급)
- 시스템 접속 URL : [www.cems.kr](http://www.cems.kr)
- 참고 : 건설기술진흥법이 시행되는 '14. 5. 23. 이후는 본 시스템을 통하여만 건설기술 용역에 대한 실적 관리 및 확인 가능함.
- 주요 조회가능 항목
  - 건설기술용역 수주 및 수행실적(규모별, 공종별, 업체별)
  - 참여기술자 현황(중복배치, 중첩도, 교체현황 등)
  - 건설사업관리업체에 대한 교체빈도
  - 제재현황(영업정지, 과징금, 벌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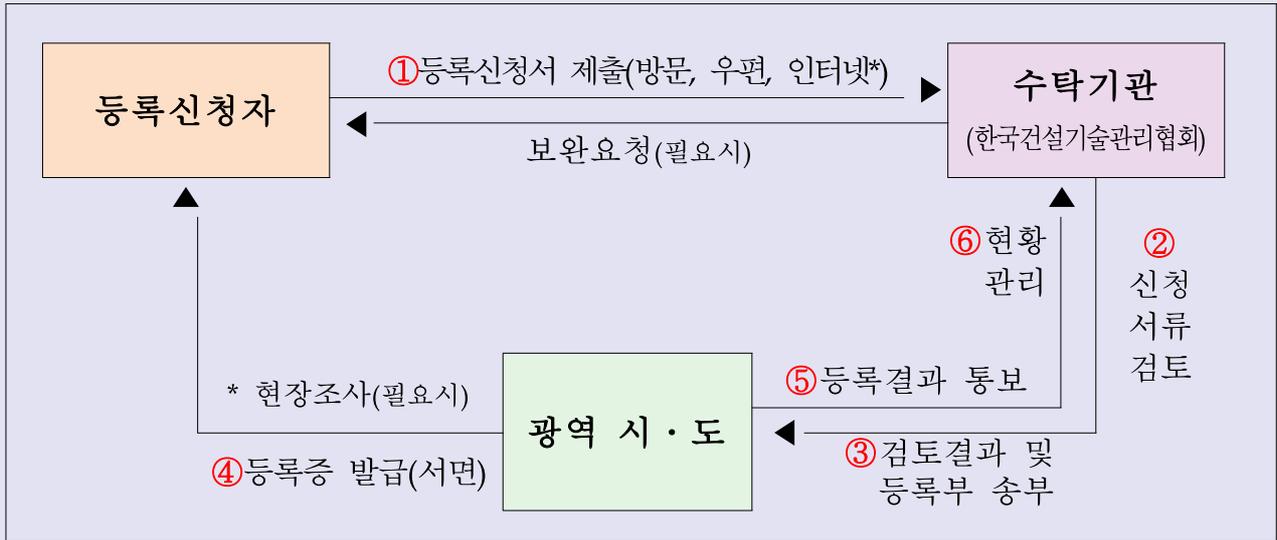
### ※ 용역실적 등재·관리 절차



■ 자료 :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회원지원실  
(02)3460-8641

##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업무 처리요령」 안내

- 2014. 5. 23.자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설계·감리·건설사업관리·품질검사 등의 업역이 건설기술용역업으로 단일화 되었으며, 이와 관련 등록 및 변경등록 등 민원의 접수·확인 및 관리에 대하여 우리 도에서는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를 위탁업무 수행기관으로 지정



- <① 단계> : 등록신청서 제출(신청인)
- <② 단계> : 신청서 접수, 고유 관리번호 부여, 서류 검토(관리협회)
- <③ 단계> : 등록서류 검토결과 통보(관리협회→해당 시·도)
- <④ 단계> : 등록증 발급(해당 시·도→신청인)
- <⑤ 단계> : 등록결과 통보(해당 시·도→관리협회)
- <⑥ 단계> : 등록결과 접수, 용역업자 등록번호 등재·관리(관리협회)

■ 자료 : 도 건설지원과 기술심의담당  
(055)211-2926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회원지원실  
(02)3460-8654

위 내용은 경상남도 홈페이지 <http://www.gsnd.net>(실국홈페이지) 및  
경상남도 건설정보 <http://gnci.gsnd.net>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재 요청 건설관련 자료 및 원고도 받습니다.

TEL : (055)211-2923~6

FAX : (055)211-2919

e-mail : [kyr4874@korea.kr](mailto:kyr4874@korea.kr)

이 자료는 업무 참고용입니다.